

# 전라남도 코로나19 주간소식 특집7호

# 16 주차

(2020.04.13.~2020.04.19)

발행일 2020. 04. 20.(화)

발행처 전라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 전라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 목차 —

- I. 코로나19 발생 현황    II. 코로나19 대응 현황    III. 해외 발생 현황    IV. 주간 정책동향    V. 팩트체크    VI. 코로나19 칼럼

## I. 코로나19 발생 현황 (4월 20일 0시 기준)

### 현황표

- (전국) 확진환자 총 10,674명 중 완치자는 8,114명으로 지난주 대비 667명 증가, 사망자는 236명으로 확인됨
- (전남) 확진환자 총 15명으로 지난주와 동일, 542명의 접촉자 중 513명은 격리 해제되었으며 29명은 현재 격리 중에 있음
- (광주) 확진환자 총 30명으로 지난주 대비 3명 증가, 1,216명의 접촉자 중 1,209명은 격리 해제되었으며 7명은 현재 격리 중에 있음

단위: 명(전주대비)

구분	확진환자 현황				접촉자 현황			검사현황		
	치료중	완치	사망	합계	격리중	격리해제	합계	검사중	결과음성	합계
전국	2,324 (-549)	8,114 (+667)	236 (+19)	10,674 (+137)	-	-	-	11,981 (-1,410)	540,380 (+45,565)	552,361 (+44,155)
전남	7 (-2)	8 (+2)	0 (+0)	15 (+0)	29 (-176)	513 (+281)	542 (+105)	514 (+42)	11,003 (+950)	11,517 (+992)
광주	8 (+0)	22 (+3)	0 (+0)	30 (+3)	7 (+0)	1,209 (+7)	1,216 (+7)	22 (-15)	11,458 (+1,593)	11,480 (+1,578)

### (지역별)

단위: 명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검역
확진환자	624	132	6,833	92	30	39	43	46	418
(%)	(5.85)	(1.24)	(64.02)	(0.86)	(0.28)	(0.37)	(0.40)	(0.43)	(3.92)
10만명당 발생률	6.41	3.87	280.44	3.11	2.06	2.65	3.75	13.44	-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확진환자	656	53	45	141	17	15	1,361	116	13
(%)	(6.15)	(0.50)	(0.50)	(1.32)	(0.16)	(0.14)	(12.75)	(1.09)	(0.12)
10만명당 발생률	4.95	3.44	2.81	6.64	0.94	0.80	51.12	3.45	1.94

### 감염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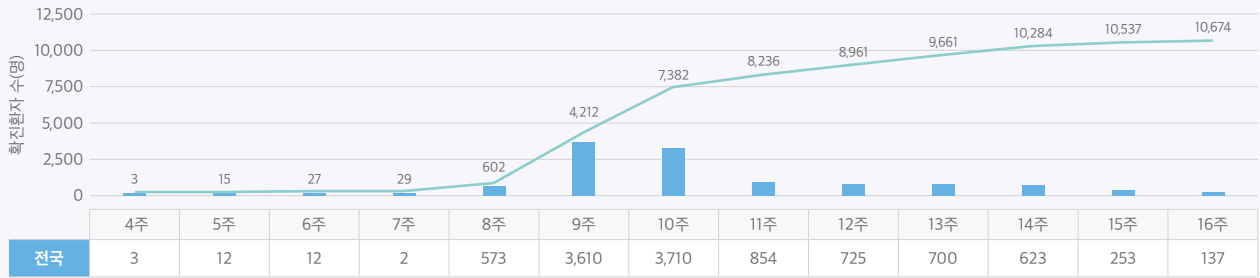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합계	해외유입	집단사례					개별사례 또는 조사중
			신천지 관련	집단발병	확진환자 접촉자	해외유입 관련	소계	
전국	10,674	1,006 (9.4%)	5,212 (48.8%)	2,035 (19.1%)	1,240 (11.6%)	157 (1.5%)	8,644 (81.0%)	1,024 (9.6%)
전남	15	7 (46.7%)	1 (6.7%)	3 (20.0%)	2 (13.3%)	1 (6.7%)	7 (46.7%)	1 (6.7%)
광주	30	14 (46.7%)	9 (30.0%)	0 (0.0%)	1 (3.3%)	6 (20.0%)	16 (53.3%)	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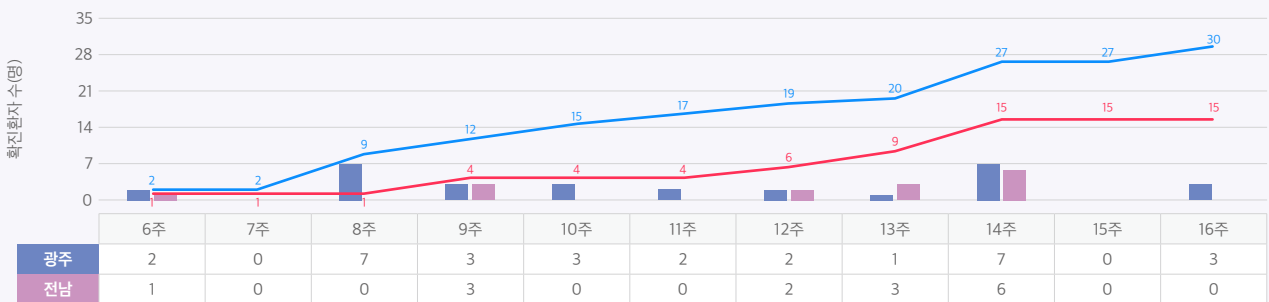
## 확진환자 발행 현황

- (전국) 확진환자의 33.8%는 9주차(2월 24일~3월 1일)에 발생했음, 16주차 신규 확진자 연일 30명 미만 유지
- (전남) 누적 확진자수는 15명으로, 2주간 신규 확진환자 발생 없음
- (광주) 누적 확진자수는 30명으로, 16주차 신규 확진환자 3명 발생

### ■ 전국 (주별, 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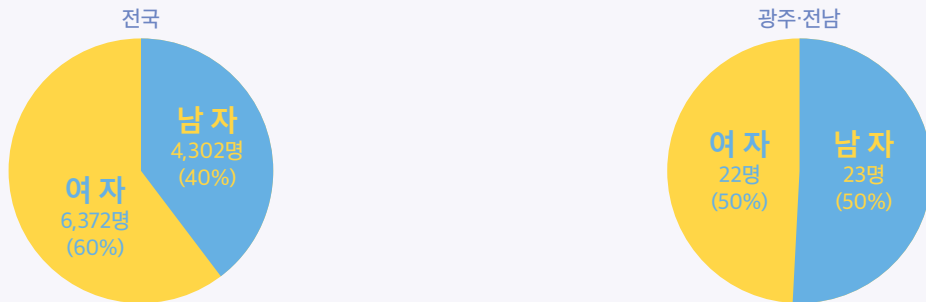
### ■ 광주·전남 (주별, 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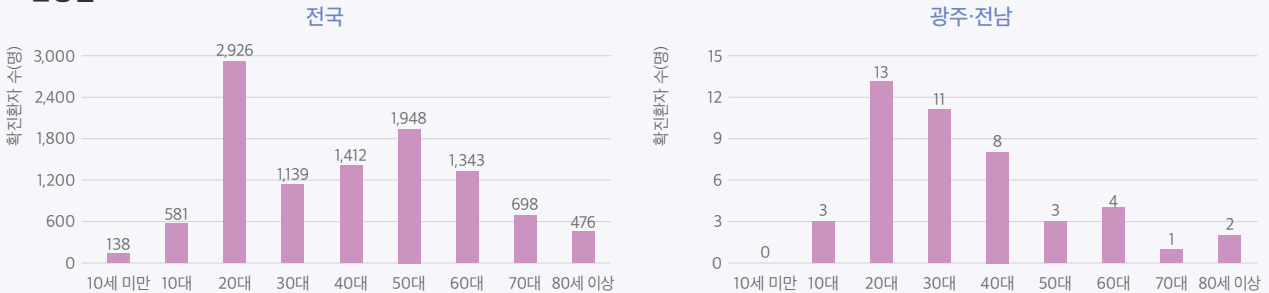
## 성별, 연령별 분포

- (전국)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60%로 남성보다 많았고,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함
- (광주·전남)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51%로 여성보다 많았고,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함

### ■ 성별



### ■ 연령별



## 치명률

- 국내 확진환자 10,674명 중 사망자는 236명으로 치명률 2.2%
- 현재 기준 광주·전남 사망자 없음

## II. 코로나19 대응 현황 (4월 20일 기준)

### 선별 진료소

#### · 지정현황

합계	전남 시·군		
	보건소	Drive-Thru	의료기관
76	23	14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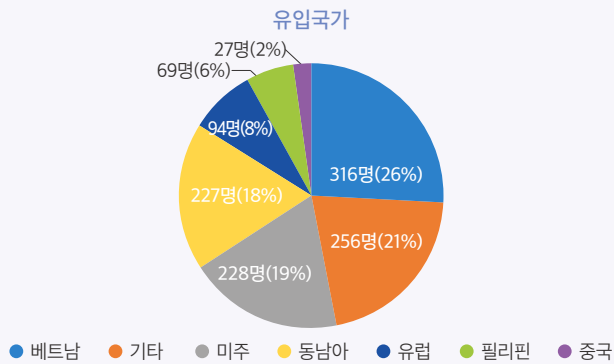
- Drive-Thru 설치 시·군: 목포, 여수, 광양, 구례, 보성, 화순, 해남, 영암, 무안·무안병원, 함평, 영광, 완도, 진도

#### · 운영현황

구분	진료			검체		
	보건소	Drive-Thru	의료기관	보건소	Drive-Thru	의료기관
건수 (전주대비)	11,636 (+857)	3,280 (+82)	15,581 (+1,225)	6,367 (+689)	1,150 (+77)	3,896 (+323)

### 입시검사시설

#### · 해외 입국자 입소현황 (4월 1일~19일 총 1,217명)



### 국민안심병원

#### · 지정현황

유형	시·군	기관명	전화번호	운영(예정)일자
A (7개)	장흥군	장흥종합병원	061-862-8300	2020.02.25
	여수시	여천전남병원	061-690-6000	2020.03.02
	여수시	여수한국병원	061-653-2000	2020.03.03
	여수시	여수제일병원	061-689-8114	2020.03.04
	목포시	목포시의료원	061-260-6500	2020.03.05
	여수시	여수전남병원	061-640-7575	2020.03.10
	목포시	목포현대병원	061-272-7588	2020.03.26
B (7개)	목포시	목포기독병원	061-280-7500	2020.02.26
	순천시	순천한국병원	061-740-5000	2020.02.26
	순천시	성가톨릭병원	061-720-6434	2020.02.27
	목포시	목포중앙병원	061-280-3000	2020.02.28
	목포시	목포한국병원	061-270-5500	2020.02.29
	고흥군	고흥종합병원	061-835-6000	2020.03.04
	고흥군	녹동현대병원	061-840-1200	2020.03.16

- 유형 A: 호흡기전용 외래 진료소 분리 운영 병원

- 유형 B: 유형 A + 선별진료소, 호흡기 병동 등 입원실까지 운영 병원

### III. 해외 발생 현황 (출처: WHO Situation Report(4월 19일))

#### 전세계 발생 현황

· 전세계 확진환자 총 2,241,359명, 사망 152,551명(사망률 6.8%)

- (유럽) 1,122,189명 발생, 100,938명 사망(사망률 9.0%)
- (아메리카) 821,860명 발생, 38,258명 사망(사망률 2.6%)
- (서태평양) 130,696명 발생, 5,621명 사망(사망률 4.3%)
- (중동) 124,691명 발생, 5,908명 사망(사망률 5.2%)
- (동남아시아) 27,319명 발생, 1,185명 사망(사망률 4.3%)
- (아프리카) 13,892명 발생, 628명 사망(사망률 4.5%)

· 발생 상위 20개국

단위: 명

순위	국가 및 지역	확진환자(전주대비)*	사망자(전주대비)*	사망률(%)
1	미국	695,353 (+202,472)	32,427 (+13,911)	4.7
2	스페인	191,726 (+29,874)	20,043 (+3,690)	10.5
3	이탈리아	175,925 (+23,654)	23,227 (+3,757)	13.2
4	독일	139,897 (+19,418)	4,294 (+1,621)	3.1
5	영국	114,221 (+35,226)	15,464 (+5,589)	13.5
6	프랑스	110,721 (+17,934)	19,294 (+5,480)	17.4
7	중국	84,201 (+719)	4,642 (+1,293)	5.5
8	터키	82,329 (+30,162)	1,890 (+789)	2.3
9	이란	80,868 (+10,839)	5,031 (+674)	6.2
10	러시아	42,853 (+27,083)	361 (+231)	0.8
11	벨기에	37,183 (+9,165)	5,453 (+2,107)	14.7
12	브라질	33,682 (+14,044)	2,141 (+1,085)	6.4
13	캐나다	32,400 (+9,856)	1,346 (+746)	4.2
14	네덜란드	31,589 (+7,176)	3,601 (+958)	11.4
15	스위스	27,322 (+2,502)	1,110 (+279)	4.1
16	포르투갈	19,685 (+3,698)	687 (+217)	3.5
17	인도	15,712 (+7,356)	507 (+234)	3.2
18	아일랜드	14,758 (+5,830)	571 (+251)	3.9
19	오스트리아	14,662 (+855)	443 (+106)	3.0
20	스웨덴	13,822 (+3,671)	1,511 (+624)	10.9
...				
23	한국	10,661 (+149)	234 (+20)	2.2

\*확진환자 및 사망자 괄호 안의 숫자는 전주 대비 증감(4월 12일~4월 18일)

- (미국)

- 전주 대비 확진자 202,472명 증가, 사망률 0.9%p 증가(3.8%→4.7%)
- 신규 확진자, 사망자 증가세 둔화, 코로나19로 인한 실업률 급등

- (스페인)

- 전주 대비 확진자 29,874명 증가, 사망률 0.4%p 증가(10.1%→10.5%)
- 사망자 2만명 넘어 이동제한 포함한 국가비상사태 연장 검토

- (이탈리아)

- 전주 대비 확진자 23,654명 증가, 사망률 0.4%p 증가(12.8%→13.2%)

- (독일)

- 전주 대비 확진자 19,418명 증가, 사망률 0.9%p 증가(2.2%→3.1%)

- (영국)

- 전주 대비 확진자 35,226명 증가, 사망률 1.0%p 증가(12.5%→13.5%)

## IV. 주간 정책동향

### 보건복지부

#### ·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복지 수위 조절

- 백신·치료제 개발 전까지 소규모 유행이 반복될 것으로 보여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하되, 국민적 피로감을 고려하여 강도를 완화하는 쪽으로 추진
- (기간) 4월 20일 ~ 5월 5일(총 16일)
- (평가) 매 2주마다 평가를 통해 거리두기 조절 수위 결정
- (내용)
  - 공공: 국립공원,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위험도가 낮은 실외·분산 시설 일부 제한적 운영 재개
  - 민간: 유흥시설, 학원, 종교시설, 생활체육 시설 등 운영중단 권고 행정명령 해제 및 방역지침준수 유지
  - 불요불급한 모임·외출·행사 가급적 자제, 필수적 시험 불가피한 경우 방역지침 준수하는 범위에서 제한적 허용
  - 지역별 위험도에 따라 각 지자체는 행정지도, 집회 금지 및 처벌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

#### · 정부, 코로나19 대응 '범정부 실무추진단' 발족

-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간 합동 범정부 실무추진단 발족
- (구성) 치료제, 백신, 방역물품·기기(산·학·연·병·정 실무자 참여) 등 3개 분과
- (역할)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방역물품·기기 연구개발, 생산, 국가비축, 방역현장 활용 등 상황분석, 현장 애로사항 파악 및 지원 방안 수립 등

#### · 외교부, 90개국 무비자 입국 제한 확대

-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해 현재 한국인 입국 금지하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 비자면제와 무비자 입국 잠정 정지, 불요불급한 목적의 외국인 입국 제한 확대(4월13일)
- (대상)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이란 등 90개 또는 지역
- (내용)
  - 단기 비자, 일부 비자 면제 협정 효력, 무비자 입국 조치 잠정 정지
  - 해당 비자 소지한 경우, 한국공관 비자 다시 신청 및 48시간 이내 의료기관에서 받은 검사내역 기재된 진단서 제출
  - 비자 신청 접수 할 경우, 건강상태 등 심사 거친 후 허가 여부 결정
- (제외) 미국, 영국, 아일랜드, 멕시코 등 한국인 입국 허용국가 제외

#### · 정부, 코로나19 아세안 대응 기금 설립

- 아세안+3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아세안 국가들과 한국, 중국, 일본 3국이 새로운 기금을 마련하여 과감한 재정투입 필요성 강조
- (대상) 한국·중국·일본 3개국의 정상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
- (내용)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을 통제하고, 역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아시아개발은행(ADB) 신탁기금을 통한 지원방안 및 아세안+3 차원에서의 기금 조성방안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자원 마련

· 전남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지원

-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프리랜서, 무급휴직 저소득 근로자,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특별 지원 사업 추진
- (대상) 코로나19로 인해 5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고용보험 미가입 저소득층 근로자
  -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연극·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원, 대리운전원 등
- (지원) 최대 2개월 동안 1일 2만 5천원, 월 최대 50만원 지원
  - 각 시군별로 현금이나 지역화폐, 체크카드 중 자율 선택하여 지급예정
  - 전남도에서 긴급생계비 받는 자는 제외

· 전남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6만곳으로 확대

- 각종 코로나19 지원금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돼 유통 규모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가맹점 확대와 업종 다양화 추진
- (내용)
  - 현재: 도·소매업과 음식점 위주의 4만5천313곳
  - 확대: 이·미용업, 학원, 약국, 의원, 숙박업 등의 다양한 업종 6만곳
  - 지역 소상공인들의 가맹점 등록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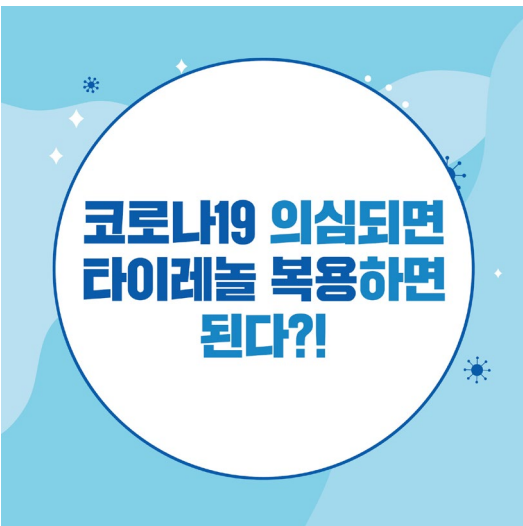
· 광주광역시, 시민 1만 2천명 이상 채용 공공일자리 추진

-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민 공공일자리 지원 센터를 설치해 공공일자리 단계별로 추진
- (기간) 1단계: 4월~6월, 2단계: 6월~12월(사업 성격에 따라 상이)
- (1단계) 코로나 대응 생활방역 일자리(코로나 안전지대 광주 만들기)
  - 생활 방역단, 대중교통시설 방역단, 열감지기운영, 생활치료센터, 민생경제지킴이: 5개 사업, 약 1000명
- (2단계) 코로나 대응 생활형 공공·민간 일자리(시민생활 지원)
  - 환경개선과 복리증진 생활형 공공일자리, 기업·소상공인 지원 생활형 민간 일자리: 18개 사업, 11,395명

· 광주광역시, 코로나19 위기 학생 특별장학금 지원

- 광주광역시 빚고을장학재단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 극복을 위해 특별장학금 4,750만원 지원
- (대상) 코로나19 발생으로 급격한 소득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세대 혹은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세대 등의 자녀 총 60명 (대학생 37명, 고등학생 18명, 중학생 5명)
- (방법) 경제난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소득증빙서류를 지참 후 21일~23일 자치구 해당부서 제출, 최종선발 장학생은 선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후 당일 개인별 지급 예정

V. 팩트체크



**팩트 체크**

**타이레놀을 사재기할 필요는 없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의심 증세를 겪는 환자들에게 소염진통제 '이부프로펜'을 쓰지 말고 대신 해열진통제 '아세트아미노펜'을 사용하라는 권고를 '근거부족' 이유로 이틀만에 철회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타이레놀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을 과다복용하게 되면 '간독성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마주하게 되는 모순, 확진자 이동 경로 공개와 개인정보 보호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예방학교실  
류소연 교수

2020년 1월 20일 중국인 여성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코로나19)로 확인이 되면서 국내 첫 환자가 발생하였다. 이후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지자체 대책반을 가동해 지역사회 감시와 대응 강화에 나섰다.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주의 이상인 단계로 조정되면서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하여 감염병 예방 및 감염전파 차단을 위해 공개되기 시작한 것이 확진자의 이동경로에 관한 정보이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비롯한 정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법적 근거하에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역학적 이유, 법령상의 제한, 확진자의 사생활 보호 등의 다각적 측면을 고려하여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현재 질병관리본부가 제시한 정보의 공개 범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개인정보**: 확진자 동선 공개 시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
- ② **시간**: 코로나19는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이고, 증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검체 채취일 2일 전부터 격리일 까지 공개함.
- ③ **장소·이동수단**: 확진자의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 및 이동수단. 시간적·공간적으로 감염을 우려할 만큼의 확진자와의 접촉이 일어난 장소 및 이동수단을 공개함.
- ④ **접촉자 범위**: 확진 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체류 기간, 노출 상황 및 시기 등을 고려해 결정함. 거주지 세부주소와 직장명은 공개하지 않으며,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시켰을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공개할 수 있음. 또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간적·시간적 정보를 특정해서 공개함. 건물의 특정 층 또는 호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특정 매장명, 특정 시간대 등을 공개할 수 있으며, 상호명 및 정확한 소재지 정보(도로명 주소 등) 확인과 대중교통 노선번호, 호선·호차 번호, 탑승지 및 탑승일시, 하차지 및 하차일시 등을 공개할 수 있음. 다만,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코로나19 발생 초기에는 공개 범위에 대한 해석이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져 확진자의 이동 경로 외에 개인정보로 성, 나이, 사는 동, 아파트명, 직장 위치 등까지 공개되었다가, 현재는 성별, 출생연도, 국적, 확진일과 입원 기간 정보 등으로 제한되어 제공하고 있다.

메르스 발생 당시 방역 실패 이유 중 하나로 발생 환자의 이동 경로에 대한 불투명한 정보공개가 제기됐었다. 전염을 일으키는 감염병에 있어서 환자의 이동 경로는 질병 전파의 매우 중요한 통로이며, 이후의 질병 발생을 예방하고 통제하는 대책 마련에 필수적인 정보이다. 이러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제대로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중대한 사태는 #31번 환자를 비롯하여 감염원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던 여러 사례에서 이미 경험한 바 있다. 그러기에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환자의 이동 경로를 포함한 정보의 수집은 질병 역학조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며, 조사자는 정확한 동선의 확보를 위해 꼼꼼하고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역학조사에 응하는 환자는 본인으로 인한 질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솔직하고 명확하게 이동 경로를 알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정보공개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 중 하나가 환자의 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되면서 환자의 신상 파악과 이에 따른 인권침해와 같은 2차 피해이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발생한 환자에 대한 탓이나 무시 혹은 질병 발생에 대하여 개인의 책임을 묻어서는 안된다. 공개된 정보로 인한 환자에 대한 과도한 비난과 사생활 침해가 일어나게 되면, 이후 다른 환자는 솔직한 정보 제공을 꺼리게 되고, 제대로 된 정보의 미확보로 인해 감염원 찾기를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렇듯 감염병에 있어서 필요한 확진자의 정보 수집과 투명한 공개는 방역이라는 노력에 밝은 면으로 비춰질 수 있으나, 개인의 정보 노출로 인한 피해는 방역의 효과를 저하시키는 어두운 그림자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수집하는 정부나 지자체는 환자의 보호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정보를 수집하고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를 맞이하는 주민은 감염병에 대한 정확한 인식으로 인한 불필요한 공포감 감소, 정보공개 필요성에 대한 동의 및 제공된 정보에 대한 과도한 관심과 비난보다는 환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염려와 배려 등을 하는 건강한 시민의식이 필요할 것이다.

